

최초의 학생발명전시회 관련

우표 및 봉투

19 93년에 발간된 '93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기념우표(왼쪽) 및 봉투.
 당시 특허청은 체신부에 협조요청을 했고, 한국발명특허협회(현 한국발명진흥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 제공했다. 불과 17년 전이지만 당시만 해도 변변한 발명특허 관련 캐릭터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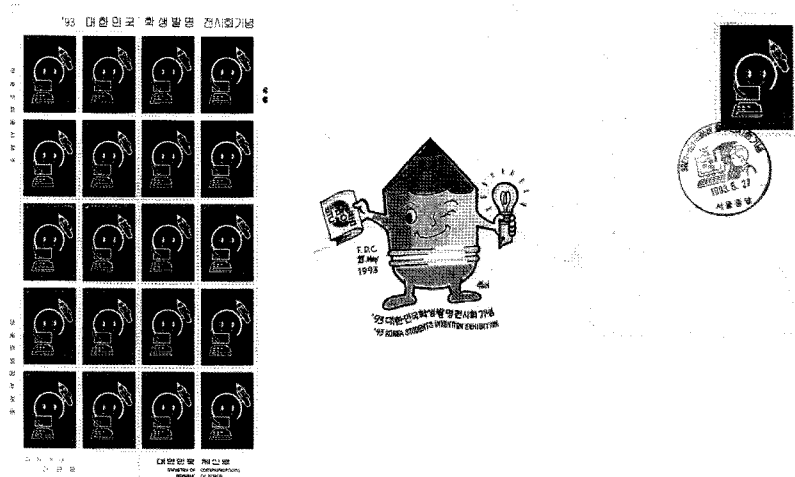
당시 자료제공을 담당했던 왕연중 씨(2006년 12월 31일 한국발명진흥회 명예퇴직, 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에 따르면 당시 발명특허 관련 캐릭터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작품모집 포스터용과 전국 초·중학생발명글짓기·만화현상모집 작품모집 포스터용이 고작이었다는 것.

몇 년 전부터 발명의 날 기념행사 등에 동영상까지 제작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단상의 현수막이 전부였다.

이에 왕씨는 위 두 포스터 캐릭터를 합성하여 10여 개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캐릭터를 제공했고, 그것들이 참고가 되어 디자이너 이근문 씨에 의해 당시 최고의 발명특허 캐릭터로 재탄생되었으며, 기념우표와 봉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맡았다.

당시 왕씨가 합성용으로 활용했던 캐릭터 2개는 1990년대 초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작품모집 포스터와 전국 초·중학생발명글짓기·만화현상모집 작품모집 포스터에서 지금도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1957년 제1회 발명의 날 기념우표도 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1993년 당시 체신부에 문의했으나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

자료제공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